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809

JCCT 2024-9-96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이 초기성인남성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e-Health literacy, self-efficacy and family values on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early adult Men

신현희*, 장수현**

Shin, Hyun-Hee*, Jang, Su-Hyun**

요약 본 연구는 초기 성인 남성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D지역 소재 3개 지역에 거주 중인 성인 초기 남성 124명을 대상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차이검정, 일원분산분석, 피어슨상관관계 분석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SPSS 22.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초기성인남성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beta=-0.24, p=0.047$)이었으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beta=0.21, p=0.024$), 질외사정 피임방법($\beta=-0.20, p=0.019$)순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요인들은 생식건강증진행위를 20.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으로 본 연구를 통해 초기성인남성의 생식건강증진행위를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 연구이다.

주요어 : 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건강증진행위, 생식 건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on reproductive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early adult men. From May 1 to June 20, 2024, data were collected from 124 early adult men in area 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SPSS 22.0, employing difference tests,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Key influencing factors included internet use for over 4 hours per day ($\beta=-0.24, p=0.047$), self-efficacy ($\beta=0.21, p=0.024$), and the use of vaginal withdrawal as contraception ($\beta=-0.20, p=0.019$), explaining 20.0% of the variance in reproductive health-promoting behavior.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or practical interventions to improve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early adult men.

Key words : Health literacy, Self-efficacy, Family value, Health promoting behavior, Reproductive health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 및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정보매체가 발달하고 개방적인 문화가 유입되면서 성에 대해 자유롭게 인식하고 있다[1]. 이러한 성

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혼전 성경험의 비율이 높아지고 첫 성경험의 연령이 차츰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특히, 사춘기를 지나 부모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난 초기성인남성은 흡연, 음주,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다양한 건강행동을 하는 경향을

*정회원,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6월 1일, 수정완료일: 2024년 7월 2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5일

Received: June 1, 2024 / Revised: July 2, 2024

Accepted: Sept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snubhangel@ync.ac.k

Dept. of Nursing, Yeung Nam University of College, Korea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경향은 젊은 세대의 질병 위험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2].

젊은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 중 특히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식건강증진행위란 성행위에 따른 책임감을 인식하고 정확한 피임지식을 알고 실천하여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유산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건강행위이다[3]. 젊은 세대 즉, 초기성인남성들은 이성교제가 많아지고 성적 접촉의 행위가 증가되어 생식건강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더하여 생식건강 고위험군으로 나뉘어진다[4]. 또한, 정확하지 않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성병,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생식건강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다[5]. 그러므로 젊은 인구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동향에서는 인터넷 사용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 건강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electronic health literacy 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6]. e-헬스 리터러시(e-Health literacy)는 온라인 상 건강관련 정보의 탐색, 선별, 이해, 평가여부에 대한 능력으로 이는 적절한 건강관련 행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7]. 특히 젊은 세대의 성인초기 남성은 생식건강행위에 대한 정보를 병원이나 의료인보다는 대부분 인터넷, 휴대폰 등의 대중전달매체를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8,9], 초기성인남성의 e-헬스 리터러시 향상을 통하여 생식건강증진행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e-헬스리터러시는 생식건강 이외에도 대학생의 건강증진 관련 연구에서 e-헬스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으며[10], e-헬스 리터러시는 투약, 운동, 관리 등의 건강관리 행위를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조사한 바[7]에 따라 온라인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 요소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변수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상황에 대처하는 자기능력에 대한 신념이자 평가이며 개인이 가진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5], 특히 초기성인기의 건강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강력한 예측인자로 보고되고 있다[5].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아지며 특히, 높

은 자기효능감은 성과 관련된 위험행위를 저하시킨다[12,13].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적욕구나 충동을 조절하여 안전한 성 건강을 유지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이 있음이 예상된다.

또한, 가족가치관은 자녀에 대한 중요성 및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출산동기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14]. 최근 생식건강은 출산능력 및 횟수 선택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인구 사업의 한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15]. 이처럼 생식건강과 가족가치관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족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안전한 성행위, 책임감, 생식기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 성병예방, 가족계획, 임신과 출산, 생식기 위생 등 긍정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15].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혼여성, 기혼여성 및 여대생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남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으로 생각되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생식건강증진행위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사춘기를 지나 이성교제가 많고 성적접촉행위가 증가되는 초기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5,16,18]. 이에 본 연구는 초기성인남성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이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초기성인남성의 생식건강에 긍정적 접근을 위한 생식건강증진행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중재를 위한 전략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성인남성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기성인남성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 실태와 그 관계를 조사하고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5월 1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하였다. 또한, 연구 분석 및 서술은 2024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 31일, 논문 작성 및 투고는 2024년 9월 30일까지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 초기 남자 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만 18~25세 미혼인 성인 초기 남성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제외기준으로는 1)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관련 약을 복용중인 자 2) 생식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 3) 외국인이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Yun and Kim [16]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중 회귀분석 검정을 위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요인 10개로 설정하였을 때 118명이 요구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2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대상자 모두 참여하여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연구에 앞서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자료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1) e-헬스 리터러시

본 연구에서는 Lee [18]가 개발한 e-헬스 리터러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1문항의 기능적 e-헬스 리터러시(8문항), 의사소통적 e-헬스 리터러시(11문항), 비판적 e-헬스 리터러시(12문항)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e-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Lee [18]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 0.90 \sim 0.92$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0.98$ 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Lee et al. [19]이 개발한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KGS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Lee et al. [19]의 Cronbach's $\alpha = 0.75$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0.90$ 이었다.

3) 가족가치관

본 연구에서는 Seo [20]가 개발한 가족가치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7문항으로 자녀 필요와 중요성에 관한 자녀가치관(3문항), 부모가 되고, 부모로서 자녀양육의 중요성에 관한 부모됨 가치관(4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 부모 됨에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Seo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0.75$ 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0.94$ 였다.

4) 생식건강증진행위

생식건강증진행위는 Jo et al. [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식건강증진행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성행위 책임감(4문항), 안전 성행위(6문항), 생식기 건강관리(3문항), 성병예방(3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Jo et al. [3]의 Cronbach's $\alpha = 0.89$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0.96$ 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윤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 중단 가능성 및 익명성과 연구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음을 안내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연구 관련 자료는 잠금장치가 달린 서류함에 3년간 보관 후 분쇄 폐기 처리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약 15~20분이 소요되었고,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총 124명의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종교,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피임방법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른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 차이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대상자 124명의 평균연령은 21.72세(±1.60)로 최소 19세에서 25세까지 범위를 나타냈으며, 89.5%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가 인지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91.1%가 '중상'이었으나 '하'도 8.9%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

Table 1. e-Health literacy, self-efficacy, family valu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일반적특성	분류	n (%)	e- 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연령 (년)	≤ 20	23 (18.5)	110.30 ±23.40	-0.07 (0.941)	28.96 ±3.13	-1.68 (0.095)	24.96 ±4.02	-1.70 (0.096)	66.78 ±12.28	-0.72 (0.475)
	21-25	101 (81.5)	110.70 ±23.11		30.75 ±4.89		26.78 ±6.80		68.80 ±12.17	
종교	Yes	13 (10.5)	109.92 ±23.50	-0.12 (0.908)	30.77 ±4.07	0.29 (0.776)	28.69 ±5.30	1.34 (0.182)	71.08 ±11.42	0.83 (0.409)
	No	111 (89.5)	110.71 ±23.12		30.38 ±4.73		26.18 ±6.49		68.12 ±12.26	
경제수준	Middle-high	113 (91.1)	110.96 ±23.31	0.50 (0.615)	30.69 ±4.57	2.11 (0.037)	26.51 ±6.38	0.39 (0.699)	68.43 ±12.02	0.02 (0.986)
	Low	11 (8.9)	107.27 ±21.10		27.64 ±4.82		25.73 ±6.86		68.36 ±14.14	
인터넷 사용수준	< 2hr/day ^a	19 (15.3)	117.74 ±28.29	1.82 (0.166)	30.37 ±5.61	0.04 (0.963)	27.68 ±6.80	0.83 (0.441)	72.11 ±10.40	3.44 (0.035)
	2-3hr/day ^b	66 (53.2)	111.44 ±23.42		30.33 ±4.45		26.65 ±6.43		69.71 ±12.52	a>c
	≥ 4hr/day ^c	39 (31.5)	105.79 ±18.84		30.59 ±4.62		25.49 ±6.17		64.46 ±11.57	
주관적 건강상태	Moderate	11 (8.9)	107.27 ±21.10	-0.50 (0.615)	27.64 ±4.82	-2.11 (0.037)	25.73 ±6.86	-0.39 (0.699)	68.36 ±14.14	-0.02 (0.986)
	Healthy	113 (91.1)	110.96 ±23.31		30.69 ±4.57		26.51 ±6.38		68.43 ±12.02	
피임방법	Condom	99 (79.8)	112.06 ±22.77	1.38 (0.170)	30.43 ±4.56	0.07 (0.943)	27.08 ±6.33	2.24 (0.027)	69.96 ±11.02	2.43 (0.021)
	Vaginal withdrawal	25 (20.2)	104.96 ±23.83		30.36 ±5.11		23.92 ±6.15		62.36 ±14.63	

^{a,b,c} Scheffe.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2~3시간이 53.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4시간 이상(31.5%), 2시간 미만(15.3%) 순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91.1%가 '건강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피임방법은 '콘돔'이 79.8%, '질외사정'이 20.2%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t=2.11, p=0.037$), 주관적 건강상태($t=-2.11, p=0.037$)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중상'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하'라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가치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피임방법($t=2.24, p=0.027$)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임방법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질외사정'을 하는 대상자에 비해 가족가치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F=3.44, p=0.035$), 피임방법($t=2.43, p=0.02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서는 '4시간 이상'보다 '2시간 미만'인 경우에서 생식건강증진행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방법에서는 '콘돔'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질외사정'을 하는 대상자에 비해 생식건강증진행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정도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헬스 리터러시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57점, 자기효능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04점, 가족가치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7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2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 상관관계 분석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e-헬스 리터러시($r=0.30,$

$p=0.001$), 자기효능감($r=0.29, p=0.001$), 가족가치관($r=0.29,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정도

Table 2. Levels of e-health literacy, self-efficacy, family valu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N=124)

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실제값	
			최소	최대
e-헬스 리터러시	3.57 ±0.74	1-5	1.0	5.0
자기효능감	3.04 ±0.47	1-4	1.0	4.0
가족가치관	3.78 ±0.91	1-5	1.0	5.0
생식건강증진행위	4.28 ±0.76	1-5	1.0	5.0

SD, standard deviation.

표 3.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 상관관계 분석

Table 3. Correlations among e-health literacy, self-efficacy, family valu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N=124)

변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r (p)	r (p)	r (p)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0.46 (<0.001)		
가족가치관	0.23 (0.010)	0.22 (0.012)	
생식건강증진행위	0.30 (0.001)	0.29 (0.001)	0.29 (0.001)

SD, standard deviation.

4.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낸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피임방법,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의 5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정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03, p<0.001$). Durbin-Watson 통계량이 1.81로 2에 근접하여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차한계가 0.46~0.95로 모두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06~2.20으

로 10미만이어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식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beta=-0.24, p=0.047$)이었으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beta=0.21, p=0.024$), 질외사정 피임방법($\beta=-0.20, p=0.019$)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질외사정 피임방법을 사용할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영향요인들은 생식건강증진행위를 20.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상자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N=124)

요인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상수	41.35	7.86			
인터넷 사용시간					
2-3시간 사이	-1.87	2.86	-0.08	-0.65	0.516
4시간 이상	-6.28	3.12	-0.24	-2.01	0.047
피임방법					
질외사정	-5.95	2.51	-0.20	-2.37	0.019
e-헬스 리터러시	0.06	0.05	0.11	1.18	0.241
자기효능감	0.55	0.24	0.21	2.28	0.024
가족가치관	0.30	0.16	0.16	1.85	0.066
R ² =0.24, Adjusted R ² =0.20 (F=6.03, p<0.0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기성인남성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 실태와 그 관계를 파악하고 초기성인남성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초기성인남성의 생식건강증진행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28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21]의 연구결과인 3.50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Kim and Ha [22]는 평균점수가 3.42로 나타나 본 연구의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최근 연구일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Kim의 연구[21]와 Kim and Ha의 연구[22]에 포함된 대상자는 대학생에 한정하여 실시한 결과이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초기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상자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결과의 차이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과과정에서 성교육의 의무화로 대학생이 과거보다 생식건강관련 행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의 경우에서 '2~3시간 사이'의 경우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났는데 건강증진행위 정도의 평균점수를 보고한 Shin and Song[23]의 보고와 일치한다. 보통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으면 다양한 정보의 습득으로 생식건강증진행위가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장시간의 인터넷 사용과 생식건강증진행위는 대체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피임방법에서는 '콘돔'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질외사정'을 하는 대상자에 비해 생식건강증진행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방법에서 콘돔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사용이 간단하며 구입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콘돔은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피임효과는 90% 이상이지만, 질외사정은 임신 확률이 21% 수준으로 질외사정은 임신의 가능성이 높으며 생식기 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외사정을 피임방법으로 선택하는 대상자가 20.2%로 나타나 생식건강증진행위 교육 시 피임의 필요성과 올바른 피임법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초기성인남성의 e-헬스 리터러시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57±0.7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8세 이상 남자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Park et al. [24] 연구에서 평균점수가 3.31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계속해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정보통신매체 활용이 증가하면

서 e-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자 특성에 따른 e-헬스 리터러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Shin and Song[23]의 결과와 일치한다. Shin and Song[23]는 연구 대상자를 초기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추후 연구에서 e-헬스 리터러시에 추가하여 분석할 일반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할수록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고 알게 되는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정보 가운데 정확한 건강정보를 찾고 이를 해석하는 역량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사료되며,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정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점수가 4점 만점에 3.04 ± 0.47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and Sung[5]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2.68로 보고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 및 학년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5]를 고려하였을 때 Kim and Sung[5]은 1~2학년의 비율이 78.8%이고, 본 연구는 21~25세가 81.5%이므로 본 연구가 나이가 더 많은 비율이 높아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t=2.11, p=0.037$), 주관적 건강상태($t=-2.11, p=0.037$)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중상'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하'로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로 인지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안정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면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아져 건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가치관은 5점 만점에 3.78 ± 0.91 이었는데 이는 중간점수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나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갖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성인 진입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가치관을 분석한 연구[26]에서 5점 만점에 2.58로 나타난 결과와 상반되는 차이로 보이는데 본 선행연구에서 남학생은 2.90, 여학생은 2.44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전통적 가족가치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그러므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본 연구의 남학생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높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와 Lee[26]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피임방법에서는 '콘돔'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질의사정'을 하는 대상자에 비해 가족가치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갖는 대상자가 피임을 잘 실천하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성인남성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에 앞서,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과 생식건강증진행위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생식건강증진행위는 e-헬스 리터러시와 생식건강증진의 양의 상관성의 결과는 Shin and Song [23]의 e-헬스리터러시와 건강증진행위와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가족가치관은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자녀에 대한 중요성 및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주는 가족가치관이 생식건강증진행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고한 Yun and Kim [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한 Kim and Sung [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위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상시킨다면 초기성인남성의 생식건강증진 행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와 선행 연구 간의 대상자의 차이가 있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초기성인남성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식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beta=-0.24, p=0.047$)이었으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beta=0.21, p=0.024$), 질외사정 피임방법($\beta=-0.20, p=0.019$)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질외사정 피임방법을 사용할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영향요인들은 생식건강증

진행위를 20.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너무 오랫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시간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정보에서 정확한 건강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해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질의사정 피임법은 안전한 성행위와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27]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여 비효과적인 피임방법은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생식건강증진행위를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 et al. 의 연구[28]에서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Kim and Sung [5]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은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8]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한 결과에 유추하였을 때 여성에게서 자기효능감은 생식 및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남성에 비해 적은 것으로 시사된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건강관리 전반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29], 높은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건강행위에 대한 긍정적 자각이 자신감으로 이어져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기성인남성의 자기효능감이 생식건강증진행위 강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연구로 향후 초기성인남성의 생식건강증진 행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기성인남성의 e-헬스 리터러시, 자기효능감, 가족가치관, 생식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e-헬스 리터러시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57점, 자기효능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04점, 가족가치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7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식건강증진행위는 e-헬스 리터러시($r=0.30$, $p=0.001$),

자기효능감($r=0.29$, $p=0.001$), 가족가치관($r=0.29$,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식건강증진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인터넷 사용($\beta=-0.24$, $p=0.047$)이었으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beta=0.21$, $p=0.024$), 질의사정 피임방법($\beta=-0.20$, $p=0.019$)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질의사정 피임방법을 사용할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영향요인들은 생식건강증진행위를 20.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어 추후 다양한 반복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요인들을 보충하여 연구를 시행하기를 제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상자를 일부 지역에서 임의 표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초기성인남성 전체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초기성인남성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 및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N.S. Kim, "Women's health indicators: A glance through women's health STATS and FACT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5, No. 235, pp. 6-14, 2016. DOI:10.23062/2016.05.2
- [2] B. Kara, and B. Iscan, "Predictors of health behaviors in Turkish female nursing students," *Asian Nursing Research*, vol. 10, No. 1, pp. 75-81, 2016. DOI: 10.1016/j.anr.2015.12.001
- [3] H.Y. Jo, Y.H. Kim, and H.M. Son,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dergraduat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31, No. 5, pp. 29-43, 2014. DOI: 10.14367/kjhep.2014.31.5.29
- [4] L.B. Finer, and S.K. Henshaw, "Disparities in rates of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1994 and 2001," *Perspectives on Sexual*

- and Reproductive Health*, vol. 38, No. 2, pp. 90–96, 2006. DOI:10.1363/3809006
- [5] B.K. Kim, and M.H. Sung, “The effect of sexual knowledge, sexual behavior and self-efficacy on their reproductive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3, No. 1, pp. 18–25, 2017. DOI:10.14370/jewnr.2017.23.1.18
- [6] WH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search, August 5, 2022 Available at http://www.who.int/topics/reproductive_health/en/
- [7] S.A. Lee, and M.H. Park, “A study on health literacy, medication knowledge, and medication misuse of rural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2, pp. 485–497, 2010.
- [8] I.O. Moon, S.K. Park, and E.G. Kim, “Influence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9, No. 2, pp. 231–224, 2015. DOI: 10.5932/JKPHN.2015.29.2.231
- [9] J.Y. Kim, J.H. Park, M. Moise, B.G. Yoon, and Y.S. Kim, “The effect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on international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3, pp. 1–10, 2022. DOI:10.17703/IJACT.2022.10.3.1
- [10] S. Lee, Y. Nam, “The effect of e-health literacy on health behavior in health science majors,” *J Korean Soc school Community Health Educ*, vol. 11, No. 2, pp. 77–86, 2018. DOI:10.35133/ksse.20180831.07
- [11] S.Y. Ju, T.H. Jang, J.H. Park, and W.S. Han, “The effect of nunchi, social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3, pp. 305–312, 2024. DOI:10.17703/JCCT.2024.10.3.305
- [12] M.H. Kim, and M.H. Jeon, “Predictors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s in college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7, No. 3, pp. 293–304, 2001. DOI:10.4069/kjwhn.2001.7.3.293
- [13] E.S. Do, and Y.S. Seo, “Factors influencing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0, No. 2, pp. 129–136, 2013. DOI:10.7739/jkafn.2013.20.2.129
- [14] H.W. Bae, “The changing family values of Korean wom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251, pp. 86–100, 2017. DOI:10.23062/2017.09.7
- [15]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The 5th national health plan (health plan 2030), December 22, 2021 Available at <https://www.khepi.or.kr/board?menuId=MENU01287&siteId=null>
- [16] S.J. Kim, and E.Y. Jung, “A relevance on health perception, health knowledg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8, pp. 5394–5403, 2015. DOI: 10.5762/KAIS.2015.16.8.5394
- [17] S.J. Yun, and H.Y. Kim, “Do family values and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influence reproductive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married women? Across-sectional surve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28, No. 4, pp. 286–295, 2022. DOI:10.4069/kjwhn.2022.11.28.1
- [18] S.R. Lee, “A study for developing eHealth literacy scale,”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8.
- [19] Y.M. Lee, R. Schwarzer, and M. Jerusalem,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May 1, 2024 Available at <http://userpage.fu-berlin.de/~health/korean.htm>
- [20] J.Y. Seo,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childbearing willingness based on number of children-ever-born,”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2015.
- [21] M.Y. Kim, “Factors affecting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23.
- [22] M.O. Kim, and J.Y. Ha, “A study on sexual autonomy, attitude towards homosexuality,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3, pp. 723–732, 2018. DOI:10.21742/AJMAHS.2018.03.18.
- [23] H.S. Shin, and Y.A. Song, “The influence of e health literacy,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and self-esteem on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early adult women: A cross-sectional surve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28, No. 4, pp. 329–337, 2022. DOI: 10.4069/kjwhn.2022.12.15.
- [24] D.J. Park, M.S. Kwon, and J.H. Choi, “The influence of health information orientation, attitude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nd e health literacy on personal health behaviors,”

- Korean Academic Society for Public Relations*, vol. 17, No. 3, pp. 379-413, 2013.
- [25]H.J. Park, M.Y. Kim, and D.Y. Jung, "The effect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the mental health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5, No. 4, pp. 513-521, 2008.
- [26]S.M. Lee, "Effects of family value orientat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hope on marriage attitudes in emerging adulthood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30, No. 5, pp. 747-759, 2021. DOI:10.5934/kjhe.2021.30.5.747
- [27]H. Kim, "Factors affecting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 19, No. 1, pp. 47-60, 2018. DOI:10.35133/kssche.20180430.04
- [28]J.H. Kim, M.J. Kwon, and S.K. Jung, "The influence of health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middle aged adul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4, pp. 494-503, 2017. DOI:10.5762/KAIS.2017.18.4.494
- [29]J.H. Park, Y .Eun, K.S. Baek, S.S. Lee, S. C. Shin, "Determinations of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middle aged rural women,"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33, No. 2, pp. 175-187, 2007.